

강헌

좌파 명리학 IV

이론세미나

命理學

제5강

연해자평

| 희기편

| 喜忌篇

是以五行不可偏枯. 務稟中和之氣.
更須絕慮忘思. 鑑命無差誤矣.

이런고로 오행은 편고한 것이 불가하니 중화의 기운을 얻어야 함이며 생각을 끊고 모든 분별을 잊고 감명한다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아래 연해자평 희기편은 연해자평중에서도 경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귀절이니 최소한 아래 내용은 알아두어야 한다.

사주를 논정함에는
먼저 삼재를 분별하고
일간 천원을 위주로 하여
팔자의 간지에 배합하여야 한다.

갑의 정관은 신금인데
유관(지지 정관)을 묘목이 상충하면
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만일 사유축합이 있으면
총파가 있어도 총파로 보지 않는 것이다.

時에 칠살을 만나면
반드시 흉한 것은 아니다.
月에서 살을 제압하고
일주가 신왕하면
그 살이 도리어 권세와 명예로 화한다.

月이 일간을 생하고
천간에 財가 없으면
인수격이다.

日祿이 時에 있고
관성이 없으면
청운의 뜻을 이룬다.

庚日이 潤下(地支水局)가 온전하면
壬癸巳午運을 꺼린다.
時에 子申을 만나면
그 복이 반감된다.

상관월건이면

흉처에 반드시 흉이 되지는 않는다.

辛癸日이丑을 많이 만나면
관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年時에 子巳二宮을 만나면
虛名과 虛利가 있다.

拱祿拱貴는

墳實(사주에 재관이 있으면)하면 흉하다.

時上偏財(官)는

다시 財(官)을 보는 것을 꺼린다.

월지편관이면

年月時중에서 制伏하여야 하니

거관유살이 되거나,

거살유관이 되면 귀격이다.

만약 관살혼잡이면 천격이다.

戊日午月을 양인으로 보지 말라.
年時에 火가 많으면 인수격이다.
월령이 건록지를 만났어도
살을 회합하는 것을 꺼리니 흉하다.

관성칠살이

혼잡할 때 합살하면 귀하다.

일간이 태왕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면
스님이 아니면 도인이다.

인수가 월령이면 재성을 꺼리는데
財運이 되면 마땅히 은퇴하여야 한다.

겁재양인을

時에서 보는 것을 꺼리는데

운로에서 다시 보면 재앙이 된다.

正氣官星은 형충극파를 싫어한다.
사주간지에 삼합육합을 기뻐한다.

일간이 無氣한데

時에 양인을 만나면 흥하지 않다.

官殺兩停이면

기쁜 것(희신)은 놓아두고

꺼리는 것(기신)은 버린다.

지지천간에 합이 많으면
貪合忘官이다.

사주에 살이 왕성하고
일주도 득령하여 왕성하면
관직으로 立身한다.

天元(일주)가 태약하면
안에서 다시 생한다.

사주에 칠살이
중중하고 신약하면
極貧이다.

女命은 殺이 없고 정관이 하나만 있어야 귀하다.
관살이 많고 관살의 합이 많으면
여승이 되거나 아니면 娼婦이다.
편관을 時에서 만났는데
식신의 制伏이 너무 태과하면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다.
상관사주가 官鄉運을 만나면 파격이다.

五行絶處가 胎元이니
생일이 胎元이면 受氣라 한다.

음양오행의 看命法이 복잡다단하니
한가지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中和의 기운을 얻어야 함이며
귀천을 분별하고 널리 옛 현인의 법을 배워 통달하여
자세히 감명한다면 그릇됨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오행상생상극은
세력관계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를 잘 알아야 용신을 잡을 수 있다.

적천수

제5장 형상

-양상 兩象

-오상 五象

-독상 獨象

-전상 全象

-억부 抑扶

-종상 從象

-화상 化象

-가종 假從

-가화 假化

-군상 君象

-신상 臣象

-모상 母象

-자상 子象